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법공양 페이지

시공 초월해 돌아가니 業 불을 곳 없어

15면에서 계속

는 것이 자비인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붙어서 사랑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가 붙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업보가 불을 자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병이 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 분 자처가 없는데 병 불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그 자체는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걸 비유하면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걸 몰라서 생각을 안하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이 세상 하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도 한마음 될 수 있나요

스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이 법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제 동생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데 다시 동생이 사용하면 얼마 안가서 또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아라. 그런데 네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작업을 한 것이다. 항상 기계에게 고마움을 갖고 작업을 해라.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계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항상 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계가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계와 나도 똑같이 한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느 것 하나도 이심전심으로 말 안듣고 말 안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있다 해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부처님으로 모두 한 데 합쳐지고, 때에 따라서 나한테도 합쳐집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고, 아들한테 오면 아들로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도리는 무슨 까닭이고 하고 불알이고 하니까, 내 마음을 전부 기계로 합쳐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둘이 아니라고 볼 때는 둘이 아닌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리 가도 하나요, 저리 가도 하나이니까요.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이리 가도 나요, 저리 가도 나이나 내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환자보면 같이 아픔 느껴져

저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는 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손님들을 치료할 때 제가 한다는 생각이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그 아픔을 느낍니다. 또 손님들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손님들의 근심 걱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그와 똑같은 원리에 속합니까?

어머니와 마찰 심해요

이건 제 가정의 문제인데 어머니와 저는 항상 마찰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제 자신은 할만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의 정신상태나 행동이 하나도 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건 전자와 전자가 똑같듯이 어머니의 마음과 처사님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처사님 마음에 어머니라는 가설이 되어 있고 자식이라는 가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주인공에

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도 스스로 밝아지고 모든 문제가 원만해질 겁니다.

'일초적임어래지'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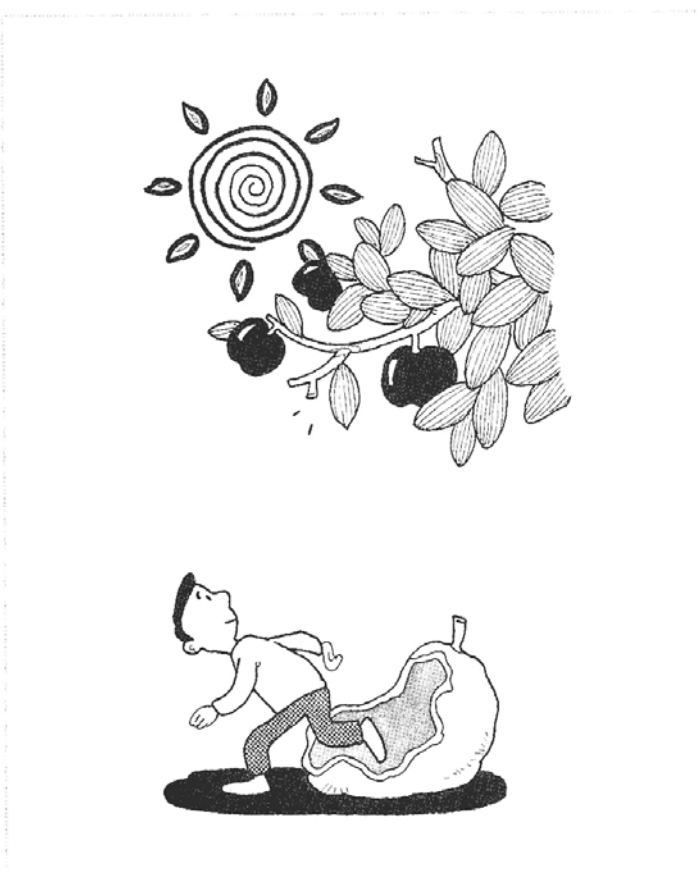
아이타불. '일초적임어래지'... 일체 계급과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삼아승지법을 뒤지도 않고 단 한번 뛰어 여래의 지혜에 오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이것이 오랜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서 스님께 여쭙고 멀리 산속에서 내려왔 습니다.

바다에 온갖 물이 다 모였어도 물 자체가 젖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온갖 물이 다 모여서 흘러 돌아도 그 물 자체는 젖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까닭을 아시요? 물어야 될 일이지만 말로 그냥 했어요. 말을 해도 말함이 없어야... 모두들 죽비를 치고, 주먹을 쥐고, 법상을 치고 하지만 쳐도 침이 아니요. 치지 않아도 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까닭이 젖지 않는 까닭이요.

한점 먼저 없이 트인 경계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짐작으로 는 그럴 것이다 라고 그에 대한 막연한 어떤 확신은 있어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한점 먼저도 없는 그러한 허공과 같은 탁 트인 그런 것이 항상 막혀왔 습니다.

대나무 방귀씨를 참구한다면 될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방귀씨를 찾았다 해도 대나무 방귀씨를 먹어서 길러야 할테니 방귀씨를 찾고 나서부터가 진짜 공부죠. 더 먹어도 안되고 덜 먹어도 안되니까 말이예요. 그러니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하게 믿고 일체 모든 것을 거기에 놓는다면 돌아가 지 않을까요? 남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나 선지식들이 이끌어 주고 깨우쳐 준다든 건 말랑 거 짓말이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말이 또 있는데 그 마음과 마음 아닌 마음이 서로 상봉을 해야만 죽어도 할 수 있죠. 진짜 이끌어 갈 수 있는... 결국 말하자면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 조상부터 발견 해야 남의 조상도 내 조상 아님이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되고 내 몸 속의 악업·선업의 중생들에게 다 행복받을 것이지요.



그림·최주현

남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단 갖다주는 것도 없고 주지 않는 것도 없는 데 인연중에 얽히고 얽혀 있는 것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데에서 한순간에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일어선다 이런 거지요. 그렇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마음을 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생기면 말을 하게 되고 용도가 생기면 행하게 되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내라고 다스려야 해요.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오고 저 것도 나오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한번 글러서

그게 매일 수도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병이 범법입니까?
병이 불을 자리가 없다고 했거늘 자기도 없는데 병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불을 자리가 없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까? 한마음은 포괄적인 한마음이지 개별적인 한마음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어떠한 것이 오든지 타치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도록 해요.

6학년 아이가 불치병 걸려...

스님,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실은 저희 애가 아픈데 처음

'이러 이러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인공' 한다면 빈 깃털이 되기 싫지요. 그렇다고 욕심이 개입되어서는 안되지요. 되고 안되고 하는 것까지 주인공 몫으로 틀리세요. 그래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인데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놓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놓고가라 했지요.

아버님이 실직당해 괴로워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떨지 잘 모르고 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을 잘 내지를 못하고 잘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것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동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다가오면 열심히 하되 거기 말려서 정신 빼앗기지 말고 '나'라는 애착 붙어있는지 관하십시오

모든 경계가 다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요 공부의 재료입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고 부정하지 말고 잘하는 것도 주인공 몫, 못하는 것도 주인공이니 일체를 놓고 맡기는 거기에 터득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마음공부 다른지

신행의 열의도 미적거리며, 그렇다고 회사 직무에도 성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일이 허무하며 추구할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의 책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할 때는 곁돌아 마음공부는 저편에 있고,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상사에게 눈에 들도록 열심히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출세욕이란 마음이 걸려 '에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공부만 하면 되는데'하고 마음의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크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극단적으로

무슨 일이든 '내가 한다' '내 것이다'라는 착을 갖고 하는게 아니라, 열심이 하되 내 마음자리를 지켜 보면서 거기에 '나'라는 애착이 붙어있는지를 관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놓고 맡기면서 열심히 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도 보고 뽕도 판다는 적으로 생활하면서 마음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생활을 멋드러지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구 종말론에 대해 한말씀...

저는 27세의 회사원입니다. 스님, 각종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학스님께서도 언급하신 지구종말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떠한 의도가 없사오니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들이 한생각 활발하게 돌리면 종말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종말이 올거라고 믿는다면 종말이 오겠지요. 나는 그런 얘기에 쿡쿡거리고 싶지 않군요. 수행방법을 물어오는데 아마도 수백번은 넘게 비슷한 질문에 대답을 했을 겁니다.

부디피아 내의 '현대불교' 읽기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를 열여섯 번이나 한 마음선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참고

가 되실 겁니다. 물어보신 그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렵니다.

호흡관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인공에 맡긴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르는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중요한 것입니까? 경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관해 보면 작은 일이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긴장이나 치우침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긴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 풀리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처분히 가라앉혀나 아니면 호흡의 들끓음을 그냥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관심을 해도 내가 느끼기엔 결과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항상 주인공에 관해서 관하려고 애쓰면 긴장이 생기는걸 알 수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이지요?

<안빈수익>을 보면 부처님이 상당히 호흡관을 중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때에는 마음보다 호흡을 보는 것이 혼란이 적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강한 것 같은데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흡이 중요하니, 올바른 호흡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한발짝 떼어놓았으니 없지요? 과거는 할나전에 지나갔으니 없구요. 일거수일투족에서 '나'라고 고정되게 부를 '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에 일체를 주인공, 나를 형성시켰고 나를 끌고 가는 근본에다 놓고 맡기라는 것입니

다. 고정된 나는 없기 때문이요. 이 점을 알고 믿으신다면 앞 뒤 둘러볼 것 없이 매사에서 '일체는 주인공이 한다'고 딱 맡기고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다시 '내가 안다'하고 되풀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안다 싶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자기를 한번 둘러보는 게기도 필요하겠지요.

한발짝 떼어 놓는 그자리, 숨을 내쉬고 들어쉬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 누가하는가를 점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게 다 나를 비롯하여 고정된 것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놓여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세계에서 '나'라고 고집할 실체가 없다는 걸 안다면 이는 걸 재확인할 할 것 없이 아는 것은 아는 그대로 놓고 주인공 받아들음을 잡고 그냥 믿고 나가는게 빠른 길입니다. 정히 심심해서 호흡법에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편할 대로 하세요. 그것 또한 들고 나는 자리는 거기, 주인공일테니까요.

사생 모습 차원 다르나 살림살이 똑같아 '나'는 빠지고 주인공에 일체놓고 맡겨야

모두가 보살로 화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중생들은 살고 못하고를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을 알며 나쁜 길로도 갈 수 있고 바른 길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겨 있고, 99% 부처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생각을 잘못 해서 세세생생에 괴달린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것이죠. 보통 비구스님네들은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는데 비구니가 구부러지기 이전에, 풀 한포기도 나 아님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생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모습은 다르고 차원은 다를지 언젠가 살림살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별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는데, 하물며 비구니라고 저버린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산하대지를 기르는 어머니요, 우주의 태양은 아버지가 되는데 어찌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자비, 그것만이 제 나 무에서 실과가 익으면 만 가지 맛이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면 씨앗이 여물어서, 되심으면 다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념과 습에 젖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청구가 이러하니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데에 빠진다면...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다시 농계할 때 글러서 다시 돌아서 나오게 되죠. 이게 직접 들어가는 순리요. 바로 통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 소리입니다. 오산통을 안다 해도 도가 아니라 했던 것은 오산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체만을 만생이 돌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하나도 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유창하게는 잘 못합니다. 남들처럼 책을 많이 본 것도 아니구요. 여러분보다 저 아래 밑바닥에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넘어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는 둘이 아니고, 선과 교도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스님이 과감히 비구 비구니를 벗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대단합니다. 내 땅의 토지값을 내지 않아도 되겠군요.

불교입장에서 본 '병'

병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 입장이나 이런 질문을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항상 품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매를 때리실 때에도 결국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매가 매가 아픔을 느낍니다. 물론 이 건 제 입장이지만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에는 단 아이들보다 곁돌이 높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6학년인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온 몸에 힘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불치병이라고 진단이 나와 있고 해서 다른 데 믿을 곳이 없어 스님께 왔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 도로써 그 업 보를 녹이려면 모든 것은 자기로 맡기어야 하는 것이며, 해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참구하세요. 애한테도 그렇게 일러주 시구요.

욕심없이 '관' 하려면...

지금 제게 중요하고도 급한 문제가 있어 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과 양면을 다 놓는다는 것이 어떤 관계 내지는 차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하기 이전이라는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아무래도 사랑의 욕심이 개입된 쪽으로 '이러 이러 해야 되지 않겠어 주인공?' 하고 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방법도 통하는 거 같습니다. 어찌해서 옳은지요? 간절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마음은 아니지요. '나'는 빠지고 주인공을 믿어 일체를 놓고 맡기라고 했지요. '나'는 지켜볼 뿐입니다.

협찬 한마음